

동련, '불교에서 본 자녀교육' 공개 강좌 “부모는 자녀 고통극복 안전지대”

현명한 부모들의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일까? 불자 부모들이 자녀에게 불교적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순천 금당절(주지 범일)과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심산)은 11월 27일 금당절 대웅전에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린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황옥자 교수는 주제강연 '불교인성을 통한 현명한 우리아이 만들기'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교적 인성이 가꾸어진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교수는 "부모는 자녀가 고통을 극복하는 안전지대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육근 경정법'을 자녀와의 소통법으로 제시했다.

님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포교다"고 말했다.

공개강좌는 △황옥자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명예교수가 '불교인성'을 통한 현명한 우리아이 만들기' △박현숙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이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장초희 어린이청소년교육지원팀장이 '행복을 전하는 보시왕'을 주제 강연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정현주(42 순천 대승사 유치원 원장)씨는 "부모로서 화두, 교사로서 화두였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교사들과 아이들, 부모들에게 불교전달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불교엑스포 3만 불자 성황

부산불교연합회, BEXCO 2~6일 불교문화 UP



제11회 팔관회 개막식에 앞서 12월 2일 해운대 벅스코 제1전시관 전관에서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등 내외 귀빈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난 극복과 불교문화장달을 위한 제11회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가 성료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불교연합회)는 12월 2일 해운대 벅스코 제1전시관 전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 팔관제계수계대법회, 4일 2010대한민국한복콘서트, 5일 고려팔관회 기점으로 곳곳에 신행단체가 결성돼 부처님의 바른법을 실천하며 지역과 사회에 많은 변화와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대승사 주지 범각 스님, 대승사 신도회 정진석 고문, 해남농협 강윤구 지부장이 참석했다.

관회를 시작했다.

불교연합회는 팔관제계수계대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수행생활과 연계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연합회는 팔관회 행사를 통해 우리 전통과 불교문화를 문화브랜드하고,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2일 개막식에는 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화산 스님, 정각 스님,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설득근 회장 등 3만 여 사부대중이 함께 참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j9818kr@yahoo.co.kr

관회를 시작했다.

불교연합회는 팔관제계수계대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수행생활과 연계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연합회는 팔관회 행사를 통해 우리 전통과 불교문화를 문화브랜드하고,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2일 개막식에는 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화산 스님, 정각 스님,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설득근 회장 등 3만 여 사부대중이 함께 참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j9818kr@yahoo.co.kr

남원 선원사 자원봉사단 최인술 단장 30일 중 20일 봉사하는 봉사왕

"고기 한점 들어가지 않은 자장이 왜 이리 맛이 있다."
"중국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구먼~."

자장밥을 먹는 어른들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맛있다며 칭찬을 쏟아 놓으신다. 선원사 자원봉사단 만의 특별한 양념 '정성'이 들어가서 일까.



매주 화요일 오전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에는 무료급식 시간에 맞춰 어른들이 모여든다. 선원사 자원봉사자들은 미리 식재료를 준비해 놓았다가 재빨리 아이를 다듬고, 한쪽에서는 장을 부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한바탕 폭풍 같은 점심시간도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대로 두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최 단장은 큰 사고를 염려했다. 처음 한두 집을 방문하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7-8가구를 방문해 가스설비교체를 해주고 있다. 최인술 단장의 숨씨는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서도 소문났다. 설비교체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그의 몫이다. 이 사업도 만만치 않지만 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최 단장이 충당하고 있다. 최 단장은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경험을 살려 무려 11톤의 돼지감자차를 팔아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자장면 봉사도 유명한 선원사의 자원봉사단은 20여 명이다.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주로 자장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배식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또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과 경로당, 군부대, 복지시설을 찾아 이미 여러 차례 자장면을 대접해온 터라 분주하지 않으면 서운할 정도다.

현재 그는 주 2회 가스설비 점검 봉사, 주 1회 선원사 무료급식소 자장면 봉사, 임실 탄약창 군부대 자장면 봉사 월 1회, 25사단 군부대 월 1회 등 정기 자장면 봉사 외에도 경로당, 요양원등을 합하면 한 달에 20일은 봉사로 보내는 '봉사왕'이다.

봉사단은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당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장면 봉사를 시작했다. 태안면 기름제거 봉사활동 중 남원지역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자장면을 만들었다. 당시 만든 자장면 만해도 1500그릇이 넘었다. 탄력을 받은 선원사는 운천 스님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자장면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 덕분에 자장면 봉사 자원봉사자들은 "일요일에 쉬어본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최 단장은 자재를 준비할 비용만 마련이 된다면 미장, 전기, 수도배관, 보일러 등 자원봉사 기술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누군가 함께 해주면, 작은 희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원봉사도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다.

불평이 섞인 것 같지만 그의 삶에서 봉사를 빼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다. 최인술 단장은 1994년부터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LPG 판매 및 설비사업을 하고 있는 최 단장은 남원시 기초수급자들에게 가스설비 점검과 낡은 가스 배관, 조정기 등을 교체해 줬다. 낡은 가스배관을 그

최 단장은 자재를 준비할 비용만 마련이 된다면 미장, 전기, 수도배관, 보일러 등 자원봉사 기술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누군가 함께 해주면, 작은 희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원봉사도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해남 농협불자 뭉쳤다

해남관내 농협직원 불자회 모임이 11월 27일 대승사 대웅전에서 총회 및 창립법회를 갖고 불자회 회장이 이숙희 현산농협 지소장을 선출했다. 초대 지도회사는 대승사 산내 관음사 주지 범각 스님이 맡았다.

이숙희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촌과 소년·소녀 가정들과 독거노인들을 돕는 불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 불자회는 "매월 정기법회와 수련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과 신행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0여 해남지역 농협불자회 참여한 이날 총회에는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했다. 임원으로는

감사 문규정 (복일농협), 총무 정찬희(해남군지부), 재무 김영미(쌍골농협) 등이 선출됐다. 창립법회에서 대승사 주지 범각 스님은 "오늘날 한국은 불자라고 말하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는 때 분명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것이 불교였다. 해남 농협 불자회를 거쳐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대승사 주지 범각 스님, 대승사 신도회 정진석 고문, 해남농협 강윤구 지부장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승사 대웅전에서 주지 범각 스님(왼쪽에서 네 번째)과 농협직원 불자회 회원들이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한국의 섬, 불교포교단’ 1년

매달 넷째 일요일은 섬포교의 날

‘한국의 섬, 불교포교단’ (단장 도제, 이하 섬포교단)이 11월 28일 전남 신안 암태도에서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암태도 암태중학교에서 진행된 ‘노만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는 도제 스님과 200여 마을 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섬포교단은 호남불교문화원(원장이준범)과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이 매달 넷째 일요일

을 ‘섬포교의 날’로 정하고 암태도를 시작으로 낙도 지역에서 포교를 펼쳐왔다. 1년 동안 섬지역 주민들에게 한방 진료, 미용, 식수, 도량 정비 등을 해왔다.

한편 우리나라 500여 유인도에는 교회가 700여 개 있으나 불교는 통계자료는 물론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소년 템플스테이 활성화’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부산불교지도자(회장 박수관) 제4주년 기념법회가 11월 2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정만 스님은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은 “2010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등 부산불교행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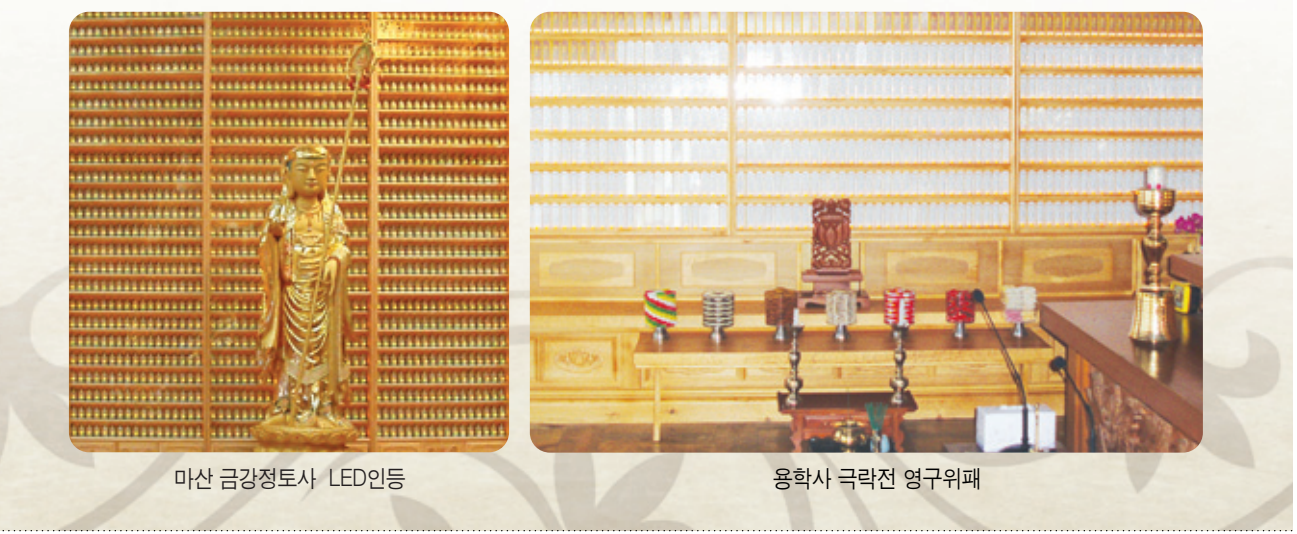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화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세)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